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 최선의 연구전략: 변수중심연구전략인가 사례중심연구전략인가*

안승국**

한국의국어대학교 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 연구교수

김유경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이은정

한국의국어대학교 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 연구원

비교·지역연구는 이른바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이라는 양대 연구전략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변수중심연구전략은 정치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지만 상관성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상당수의 변수중심연구들은 과소평가 되거나 무시되어왔다. 또한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소수의 비교사례에 공통적인 상수요인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비교사례를 포괄하는 일반적 설명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변수중심연구전략이나 사례중심연구전략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정확한 인과적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전략의 집합이 필요하다. 연구전략의 집합은 변수중심 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례중심 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규명에 사례중심 연구의 정성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사례중심 연구에 정량적 자료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 주제어: 비교지역연구, 변수중심연구전략, 사례중심연구전략, 인과관계, 연구분석설계

1. 서론

비교·지역연구¹⁾는 다른 사회과학적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상호독립적인 원인현상과 결과현상이 반복적으로나 규칙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지칭한다. 물론 엄밀한

* 이 논문은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저자

1) 본 논문에서 비교연구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메타이론적 범주로서 정치사회단위의 속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역연구는 적용범위에 있어서 이른바 중범위이론의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을 비교가능사례에 한정시킨 것으로 정의한다.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원인현상과 결과현상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과관계를 존재하게 하는 기제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원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인과관계를 완전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연구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비교·지역연구는 이른바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이라는 양대 연구전략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사회과학방법론의 측면에서 두 연구전략은 정치사회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의 생산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양자는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 명백히 구분되며 보다 정확한 인과적 추론이라는 측면에서 상호경쟁에 놓여 있다.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 변수중심 연구전략은 정치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지만 상관성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상당수의 변수중심연구들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어왔다. 또한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소수의 비교사례에 공통적인 상수요인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비교사례를 포괄하는 일반적 설명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있는 연구결과들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전략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간의 논쟁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변수중심연구전략

1. 변수중심연구전략의 분석논리

변수중심 연구전략은 정치사회구조를 변수들로 환원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변수중심 연구는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적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Nagle, 1961: 4).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변수중심 연구는 다수의 자료를 기초로 한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 설명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일반성을 중시하는 변수중심 연구전략은 복잡성(complexity)을 중시하며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거나 단지 제한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사례중심 연구전략과는 다르다.

변수중심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론의 검증은 정치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서의 분석단위에 대한 변량간의 인과관계를 다양한 맥락에서 규명하는 것이다(Przeworski and Teune, 1970). 검증과정에서 다수의 자료를 기반으로 변량간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유형이 규명된다면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²⁾ 그러나 변수중심 연구전략은 인과적 가설의 타당성 및 인과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의 내용을 규명하지는 못

한다. 즉, 변수중심 연구전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이다 (김웅진, 1992: 81-82).

변수중심연구전략은 변수간의 계량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계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단 정확한 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변수가 많을수록 통계분석의 설명력은 높아지며 특정한 통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변수를 필요로 한다(Blalock, 1972: 215-218).

변수중심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는 사례중심연구가 단정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확률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변수중심연구는 현상에 관한 보편 법칙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사회현상의 본질적 특성과 연구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확률적 의미의 통칙을 생산한다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변수중심연구는 설명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변수중심연구는 단지 모집단을 잘 대표하도록 선정된 사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여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모집단에서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추론할 뿐이다. 따라서 변수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확보되었다면 그것이 모든 사례에 걸쳐 백퍼센트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화될 수 있다.

변수중심연구에서 이탈사례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무시된다. 따라서 변수중심연구는 사례중심연구에 비해 광범위한 사례에 대한 보편적 통칙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인정된 확률적 통칙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치되는 이탈사례들을 무시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변수중심연구의 기본적인 가정들과 전제조건들을 엄밀하게 준수하는 것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변수중심연구가 연구대상의 모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설이 성립하는 공간적, 시간적 성립선행조건을 명백히 한다면 연구결과를 적합한 수준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변수중심연구전략은 또한 분석단위의 유형에 따라 특징지어 질 수 있다. 변수중심연구에서 변수로 상정되는 것은 사회구조의 속성이며 이 속성들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변수중심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변수중심연구의 이러한 거시적 특징은 증가성 있는 변수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다. 즉, 미시적 수준의 분석단위는 거시적 분석단위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하므로 비교가능성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일반성을 추구하는 변수중심연구는 자연스럽게 거시수준의 분석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중심연구가 거시적 수준에만 고정될 필요는 없다. 분석수준은 연

2) 그러나 관련되는 모든 변수들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귀납에 의한 일반이론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학이 갖는 이러한 한계에 관해서는 Almond and Genco(1977) 참조.

구주제와 가설, 개념과 지표의 등가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방법론적 기준에 따라 이론의 범주와 성립선행조건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중위적 또는 미시적 수준의 분석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적 관찰과 자료의 수집 대상인 관측단위와 최종적으로 가설이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단위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결과는 각 분석단위에 적합한 분석수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의 유형은 척도와 측정의 수준뿐만 아니라 분석수준과 분석기법까지도 결정한다.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자료는 그 속성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유형화된다. 첫째, 속성의 존재의미만을 갖는 명목수준의 자료, 둘째 속성들간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서열 또는 순위자료, 셋째 속성들의 절대적 양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 자료로 구분된다. 정량적 수준에 근접할수록 고급 통계기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중심연구는 정량적 자료를 선호한다.

그러나 통계기법은 양적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상관관계의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해주는 카이스퀘어(X^2)검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두 개의 값을 갖는 명목수준이고 종속변수가 정량수준일 경우에는 표본간의 차이를 검증해주는 평균차이검증(t검증)을 사용할 수 있다.

2. 변수중심연구전략의 적용

변수중심 연구에는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도입되며 이러한 기법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기법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간의 상관관계³⁾를 규명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상관관계 연구에 적용된 최초의 기법은 교차표(cross-tabulation)분석이었다. 콜먼(Coleman, 1960)은 75개 개발도상국가들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민주주의(정치발전)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교육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적인 체제의 발전수준이 높았다. 러셋(Russett, 1965)은 대중소비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냈다(Dahl, 1971: 65-66에서 재인용).

다알(Dahl, 1971)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 수록 다두정(polyarchy)일

3) 상관관계란 변수의 변화유형의 공유, 즉 공변(covariance)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독립변수가 일정한 시간적 조건의 구획 속에서 항상 종속변수의 분산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비인과적 상관관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존재가 곧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이아몬드(Diamond, 1980)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자료와 1인당 국민소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5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 75%가 민주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헌팅턴(Huntington, 1991)은 지금까지의 교차표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적합한 경제발전수준을 논의하였다. 헌팅턴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대부분은 중간수준의 경제발전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1974년에서 1989년까지 민주화가 진행된 31개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 중 반수 이상이 중간수준⁴⁾의 경제발전애 놓여 있었다. 다이아몬드(1992)는 프리덤하우스 점수에 따라 정치체제를 일곱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와 경제발전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중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간주되었다(Bollen and Jackman, 1985: 42).

교차표분석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 교차표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분석대상국가들을 범주화함으로써 비교연구에 있어서 직면하는 난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즉, 범주내의 국가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범주간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주화의 기준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며 변수간의 인과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커트라이트(Cutright, 1963)는 다중상관기법⁶⁾을 도입하였다. 커트라이트의 연구에서 민주주의(정치발전)는 커뮤니케이션의 발전($r=0.81$), 도시화($r=0.69$), 교육수준($r=0.74$), 산업화($r=0.72$)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커트라이트의 발전지표와 민주주의간의 상관관계($r=0.82$)는 상당히 강했다.

4) 1976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이상 3,000 달러이하의 수준이다.

5)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가장 빈번한 난점은 분석대상간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문제이다. 세보르스키(Przeworski, 1995)는 국가간 비교를 행하는 경우 서구국가들간의 비교는 합당하지만 서구국가와 남미국가간의 비교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구대상의 범주를 한정하게 되면 검증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연구결과의 적용범위는 축소된다.

6) 래긴(1987)은 다중통계기법이 비교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 다중통계기법은 첫째, 한번에 다수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석사례를 상당히 증대시켰다. 둘째, 정량적 자료에 대한 관심유발로 이론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이론검증을 통해 대안적 설명의 채택을 가능하게 했다. 넷째, 집합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다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했다. 다섯째, 다중통계기법은 독립변수들간 그리고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엄밀히 규명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를 신중하게 했다. 여섯째, 확률적 인과관계를 가정함으로써 이탈사례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일곱째, 통계적 통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표 1> 변수중심연구전략을 적용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콜먼 (1960)	커트라이트 (1963)	커트라이트와 윌리 (1969)	잭맨 (1973)
분석기법	교차표 분석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석기간	1960	1945-60	1927-66	1960
분석사례 수	75	77	40	66
민주주의의 척도	선거참여	정치적 대표 인덱스	커트라이트 인덱스 선거권 인덱스	민주적 구조 정치참여 언론의 자유
경제성장의 척도	산업화	1인당 국민소득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log)
분석결과	긍정적 상관관계(r=0.68)	긍정적 상관관계	긍정적 상관관계	긍정적 상관관계
	볼렌 (1983)	볼렌과 잭맨 (1985)	다이아몬드 (1987)	립셋 외 (1991)
분석기법	다중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석기간	1960, 1965	1960, 1965	1965-1985	1960, 65, 70 75, 80, 85
분석사례 수	28-99 94-100	97-109	80-100 62-72	66-104
민주주의의 척도	언론, 시위의 자유;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제재	볼렌 인덱스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자유점수	볼렌 인덱스와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자유점수
경제성장의 척도	1인당 국민소득 에너지소비량 (log)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생활수준	1인당 국민소득
분석결과	긍정적 상관관계	긍정적 상관관계	긍정적 상관관계	긍정적 상관관계

자료: Diamond(1992: 469-471)에서 재구성.

커트라이트와 윌리(Cutright and Wiley, 1969)는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발전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제성장으로부터 민주주의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다. 즉, 그들은 사회보장수준이 높고 문자해득율이 높은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간의 매개변수를 규명하였다.

맥크론과 너드(McCrone and Cnudde, 1967)는 사이먼-블레이크(Simon-Blalock)방법⁷⁾을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경로를 밝혀냈다. 그들이 찾아낸 인과경로에 따르면 도시화는 교육수준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약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교육수준은 대중매체의 확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강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잭맨(Jackman, 1973)은 민주적 구조, 정치참여, 언론의 자유를 통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를 구성하고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선형(linear)모형보다 적합성이 큰 곡선형(curve-linear)모형을 규명하였다.

볼렌(Bollen, 1983)은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볼렌은 경제발전수준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볼렌과 잭맨(Bollen and Jackman, 1985)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이 상정한 요인은 경제발전, 문화적 다원성, 신교도의 비율 등이었다. 볼렌과 잭맨은 문화적 다원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민주주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경제발전이었다. 또한 그들은 경제발전의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III. 사례중심연구전략

1. 사례중심연구전략의 분석논리

비교·지역연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특정한 결과나 경험적 현상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설명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연구전략으로서 사례중심연구전략은 특정한 사례들과 역사적 연대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비교·지역연구방법의 한 전략으로서 사례중심연구전략은 크게 세 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래긴과 자렛(C. Ragin and Zaret)은 이론을 적용하여 경험적 사례들을 해석하기 위해 연구전략을 도입했다. 그러나 스카치폴과 소머즈(T. Skocpol and M. Somers)는 이론의 유사증명을 구성하거나 비교가능한 사례들의 집합을 교차

7) 통시적 분석(diachronic analysis)과 동시적 분석(synchronic analysis)을 통해 규명한 상관관계의 유형으로부터 인과성을 추론하는 방법.

하는 인과적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톨리(Charles Tilly)는 여전히 다양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보편적”, “포괄적”, 혹은 “변이 모색적” 전략으로 비교전략을 사용했다(Ragin, 1987; McMichael, 1990).

어떠한 목적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와 관계없이 사례중심연구전략의 기본논리는 밀(J. S. Mill)이 경험적 일반화를 구축하기 위해 『논리의 체계(*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1843)』에서 제시한 일치법(the method of agreement)과 간접차이법(the indirect method of differe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치법은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경험적 일반화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열등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치법에 있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현상이 몇 가지 가능한 인과적 조건들 중 하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 조건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치법의 적용은 직접적이다. 즉, 어떤 상황이 현상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초래한다면 그 상황은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일치법은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동일시되는 불변성의 유형을 규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수적인 연관성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일치법은 비교·지역연구에 있어 다중 인과성(multiple causality)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밀의 간접차이법⁸⁾은 일치법의 이중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차이법은 원인과 결과의 교차표를 이용해서 불변성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용된다. 즉, 원인과 결과의 교차표를 통해 일치법을 이중적으로 적용한 다음 ‘쌍비교(paired comparison)’를 통해 경쟁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인 것이다. 밀에 따르면 실험디자인에 보다 근접한 간접차이법이 단순한 일치법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간접차이법 또한 다중 인과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간접차이법의 또 다른 문제는 ‘쌍비교’와 관련되는 결합적 인과성(conjunctual causality)이다. 부정적 사례와 긍정적 사례의 ‘쌍비교’는 서로 다른 요인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할 때 결합된 요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간접차이법과 일치법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간접차이법이 긍정적 사례로부터 나오는 결론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정적 사례들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를 위한 사례집합의 정의는 이론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합의 정의는 가설화된 원인의 경우와 결과의 경우에 대한 지식에 의해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례중심연구는 특정한 사례들이나 사례들의 특정한 범주에 대한 관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사례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

8) 밀의 차이법과 일치법은 여러 비교사회학자나 비교정치학자에 의해 널리 소개되었으나 그가 차이법과 일치법이 적용될 수 없을 때 제안한 간접차이법(the indirect method of difference)은 Ragin(1987: 39-42)의 글을 제외하고는 소개된 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능하다. 또한 이론적 또는 구체적 지침이 없이 부정적 사례를 선택하는 것은 임의적이며 이례적일 수 있다.

2. 사례중심연구전략의 적용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사례를 구조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하고 사례간 비교를 행하는 것이다. 사례중심연구전략의 목적은 특정결과나 현상의 인과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특정한 현상 또는 사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거나 특정하게 범주화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입된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유형을 분석하는 변수중심연구전략과는 달리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불변적인 관계의 규명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전략은 변량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관계(constant association)의 유형을 밝히기 위해 도입된다(Ragin, 1987: 42). 인과관계의 규명에 있어서도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확실적인 인과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인 인과관계를 전제한다. 사례중심 연구전략에서 원인의 광범위한 분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즉, 단일한 원인의 상대적 빈도보다는 원인의 다양한 유형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대체로 특정 사례에 중점을 두면서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Skocpol and Somers, 1980: 136). 그러나 모든 사례중심 연구들이 이러한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중심 연구에서도 변수중심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에서 경험적 일반화가 시도되기도 한다.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분석사례 수가 비교적 소수인 경우에 적합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거시적 계량연구보다 과정의 역동성을 보다 상세히 규명할 수 있다. 즉, 사례중심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내용은 교차연구에서 규명되는 일반적인 조건들보다 훨씬 풍부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자료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한다(Ragin, 1987: 49). 둘째, 사례중심 연구전략에 주로 도입되는 정치경제적 접근법은 특정 정치사회현상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셋째, 레긴에 따르면 사례중심 연구전략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상이한 성격의 두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양한 인과경로와 동일한 원인에서 기원되는 상이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레긴은 거시 사회현상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인과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사례중심연구가 복잡한 인과성을 다루는 데 유용한 이유는 변수중심연구가 분석대상을 인과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 사례중심 연구는 분석사례가 갖는 독특한 인과조건 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인과조건들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때문이다. 즉,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특정 현상의 특성을 규명하고 역사적 구조에서 인과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넷째, 사례중심연구전략에서 채택되는 분석개념은 역사적이다. 따라서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변동과정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도 적합하다. 즉, 분석개념이 갖는 역사적 연속성은 발생론적이고 인과적 설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수중심연구전략이 구조적 설명의 도출에 편향되어 있는 반면 사례중심연구전략의 목적은 구조적 설명의 추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Ragin 1987: 70). 단일사례 분석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자의주의적인 편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비교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비교연구는 분석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결과에 대한 상이한 원인도 규명해 준다.

다섯째, 사례중심연구전략은 경험적 증거에 대한 접근에서 유연하기 때문에 증거의 검토에 있어 제한적이거나 엄격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자료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사례는 전체로서 즉, 조건들의 조합으로부터 결과한 전체적인 상황으로써 검토되고 사례들은 전체로서 서로 간에 비교되기 때문에 인과적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무어(Moore, 1966)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기원』은 사례중심연구전략을 채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무어는 8개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적 근대화 주요한 세 가지 유형을 규명해 냈다. 그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유형은 상이한 인과적 조건들의 결합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또한 무어의 연구는 농업의 상업화와 같은 동일한 인과적 조건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의 연구목적은 이와 같이 상이한 결과의 역사적 기원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어의 연구는 사례중심연구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사례의 해석보다는 인과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그는 인과적 조건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구조적 요인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례중심연구들은 구조적 요인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일부 연구들은 과정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린즈(Linz 1978)의 연구나 오도넬과 슈미터(O'Donnell and Schmitter, 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린즈는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과정과 민주주의 지지세력들의 실패에 주목하였다. 오도넬과 슈미터도 중남미의 재민주화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치세력들간의 분열과 협약의 요인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분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에 기인된다. 즉, 분석기간이 짧으면 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중심연구전략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변수중심연구전략에 입각해서 통시적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러스토우(Rustow, 1970)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변수중심 연구전략을 채택한 교차국가분

석보다는 과정의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화과정의 모형을 수립하면서 주요 행위자간의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구조를 규명하였다. 오도넬(1973)의 연구도 사례중심연구전략에 입각한 경우이다. 오도넬은 계량분석을 통해 입증된 사회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이탈사태에 주목하였다. 그는 단일한 인과적 조건이 사례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도넬의 관점에서 남미의 경우 근대화론의 가정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근대화는 권위주의와 밀접히 연계된다. 따라서 사례중심연구전략에 따르면 단일한 인과적 조건은 특정사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재검토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연구대상 사례의 수와 관련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례중심연구전략은 대상사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더욱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사례의 수가 증가하거나 인과적 조건들의 수가 증가한다면 전체 사례집합에 대한 공통적인 인과조건의 존재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례중심연구전략의 유용성은 약화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과 조건이 다양한 경로로 조합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다. 즉, 인과조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논리적으로 가능한 인과조건의 조합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사례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IV.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의 접합

앞의 논의에서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은 각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될 필요가 있다. 상호보완적인 연구는 연구전략의 접합⁹⁾으로 가능하다. 변수중심 연구전략과 사례중심 연구전략은 근본적으로 인과적 추론의 논리가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보완될 수 있다. 즉, 변수중심연구전략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사례 속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전략은 변수중심연구전략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발생하는 단점, 즉 인과관계의 내용결여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례중심 연구전략에서 획득될 수 없었던 인과관계의 실증성이 확보될 수 있다. 사례중심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추론은 모호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오도넬의 연구에서 산업화의 심화와 관료적 권

9) 접합적(combined) 연구전략과 통합적(synthetic) 연구전략은 상이하다. 접합적 연구 전략은 분석대상에 변수중심 연구전략과 사례중심 연구전략을 동시에 적용하지만 통합적 연구전략은 두 연구전략의 몇 가지 특징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다. 래긴은 통합적 연구전략으로서 불리언 접근법(Boolean approach)을 제시한다. 이에 관해서는 Ragin(1987, 제6장) 참조. 그러나 불리언 접근법은 인과관계의 심도를 측정하지 못하며 자료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김웅진, 1993: 248).

위주의간의 관계는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전략의 가장 용이한 접합은 사례중심연구에 계량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방법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연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우선 사례중심 연구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요인보다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대부분의 사례중심연구는 행위자들이 구성해 내는 정치 사회적 변동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일반적으로 단일사례에 있어서 구조변수가 변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기인된다. 따라서 사례중심연구는 불가피하게 주요 정치세력이나 정치엘리트의 행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교차국가연구는 구조적 설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설명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이한 연구전략의 접합은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변수중심연구는 행위자들의 전략과 실천의 맥락이 되는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사례중심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사례중심연구는 계량분석의 결과에 설득력 있는 해석을 첨가시킬 수 있다.

쇼터와 킬리(Shorter and Tilly, 1974)는 1830년부터 1968년까지의 프랑스에 있어서의 노사분규에 관해 연구하면서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변수중심연구전략은 이론검증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분석대상이 단일사례였기 때문에 부문별 자료에 대한 교차분석과 연도별 자료에 대한 시계열(time-series)분석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단일사례에서는 가설을 일반화하기 위한 충분한 변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쇼터와 킬리는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모형을 정립하고 상이한 독립변수들을 비교검토하여 유용한 변수를 규명하였다. 계량분석의 결과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동자의 조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산업화가 노동계급의 집단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경험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쇼터와 킬리는 변수중심연구전략으로 규명한 설명변수를 가지고 노동계급 소요의 역사적 국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상호 보완될 수 있다. 즉, 계량분석은 설명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줌으로써 사례중심연구의 기반이 되며 사례중심연구전략은 계량분석에 연구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물론 사례중심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구축한 분석모형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모형은 지역적 차원이나 범세계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후속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소한 단일사례에 있어서는 변화양상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의 접합이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확한 인과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중심연구에서 인과성의 규명은 모호한 가설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분석개념의 선택은 자

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과관계의 양상은 단순화되거나 축소되었다.

페이지(Paige, 1975)의 연구도 두 연구전략의 접합을 시도했다. 페이지는 일차적으로 변수중심연구전략에 의해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농민소요에 관한 가설을 검증했다. 그의 가설은 농업이 조직화되는 방식이 농민소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페이지는 가설검증을 위해 농업의 조직화방식과 농민소요의 유형을 각기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교차표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페이지는 변수중심연구전략에 의해 규명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3개국의 사례를 해석하였다.

스티븐스(Stephens, 1979)도 자신의 연구에 두 연구전략을 동시에 도입하였다. 즉, 그는 집합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별사례에 대한 해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스티븐스의 방법론적 특징은 단순히 통계적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례중심연구전략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스티븐스는 변수중심연구전략에 의해 규명된 주요 변수들을 심도있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통계분석으로는 구조적 맥락을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제나 행위자의 선택을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초래하게 되는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연구전략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스티븐스의 가설은 노동계급의 조직화정도가 강할수록 복지국가의 발전이 촉진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17개국의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의 3개국 사례와 스웨덴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는 두 연구전략의 접합을 통해서 구조와 과정의 연계도 시도하였다.

쇼터와 킬리의 연구나 페이지의 연구는 인과유형의 일반화를 고려하지 않고서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을 병렬적으로 불완전하게 접합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가 갖는 의미는 연구전략의 접합을 시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접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있다. 이와는 달리 스티븐스의 연구는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을 성공적으로 접합시켰다. 스티븐스의 연구가 앞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것은 스웨덴을 이념형(ideal type)으로 한 것이지만 두 연구전략이 적합하게 조응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스티븐스의 연구는 계량분석에 의해 규명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스웨덴의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3개국에서도 동일한 변수들이 의미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연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연구전략은 스티븐스의 연구전략이다. 즉, 특정비교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량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모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해석이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안적 연구전략은 분석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후 다시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V. 결론: 접합적 연구전략의 방법론적 함의

연구전략의 접합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전략이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즉, 변수중심연구전략이나 사례중심연구전략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정확한 인과적 추론이 불가능한 것이다. 연구전략의 접합은 변수중심 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례중심 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변수간의 상관관계 규명에 사례중심 연구의 정성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사례중심 연구에 정량적 자료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Tarrow, 1995).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실증적 분석은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량적 자료를 분석하는 실증적 분석이 사회과학연구를 완전히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인과적 추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증적 분석은 시론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실질적으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시론적 연구들은 불가피하게 실증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시론적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최소한 상관관계는 명백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인과적 추론을 위해서는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을 적절하게 연계시킨 연구분석설계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진행순서상 연구주제에 적합하게 먼저 변수중심연구전략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주제가 거시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계적 검증에서 총체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중심 연구전략을 통해서 변수들간의 인과기제를 규명할 수 있다. 만일 연구주제가 미시적 성격을 갖는다면 일단 개체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현실적 맥락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연구주제가 복합적이라면 먼저 구조적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행위가 전개된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연구전략의 접합이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방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에 기인되는 방법론의 성화(聖化)와 이론의 화석화(化石化)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웅진, 1996). 변수중심연구에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해도 사례중심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관관계는 다만 통계적으로만 유의미할 뿐이지 인과적 추론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또한 사례중심연구는 구체적 인과기제를 규명하기 때문에 변수중심 연구에서 일반화에 수반되는 구체성의 결여를 보완해 준다. 따라서 접합적 연구전략은 성화되지 않은 연구전략으로서 이론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확한 인과적 추론은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을 접합시킬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합을 위해서는 최선의 연구분석설계를 정립시켜야 한다(King, Keohane, and Verba, 1995). 연구분석설계는 연구전략의 접합뿐만 아니라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그리고 통계적 타당성이라는 세 가

지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비교·지역연구의 과학성은 증대될 것이며 인과관계의 실질적 규명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김웅진. 1989. 「모형화작업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론척도 : 실용성과 효용성에 관한 재성찰」. 『한국정치학회보』 23집2호.
- _____. 1992. 『정치학방법론서설 : 경험과학연구의 논리와 기준』. 서울: 명지사.
- _____. 1993. 「Boole의 대수학적 연산방식을 통한 정성적 비교분석 : 기본전제와 절차」. 『국제정치논총』 33집1호.
- _____. 1996. 「방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 연구방법론의 성화(聖火)와 지식의 화석화(化石化)」.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 경험과학 연구의 재성찰』. 서울: 인간사랑.
- Almond, Gabriel A. and Stephen Genco. 1977. "Clouds, Clocks, and the Study of Politics." *World Politics* 29(4).
- Blalock, Hubert M. 1972. *Social Statistics*. New York: McGraw-Hill.
- Bollen, Kenneth A. 1979. "Political Democracy and The Timing of Develop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 _____. 1980. "Issues in the Comparative Measurement of Political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3).
- _____. 1983. "World system position, dependency, and democracy: the cross nation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4).
- _____ and Robert Jackman. 1985. "Political democracy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4).
- Caporaso, James A. 1995. "Research Design, Falsification, and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ivi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 Collier, David. 1995. "Translating Quantitative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ers: The Case of Selection Bia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June.
- Coleman, James S. 1960. "Conclusion: the political systems of developing areas." In Almond, G. A. and Coleman, J. S., 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utright, Phillips. 1963. "National political development: Measurement and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2).
- _____ and James A. Wiley 1969. "Moderniza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1927-1966."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 Development* 5.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80. *The Social Foundation of Democracy: The Case of Nigeria*.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_____. 1987. "Class formation in the swollen African stat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25.
- _____. 1992.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Reconsidere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4).
- Dix, Robert H. 1985. "The Breakdown of Authoritarian Regime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XXXV(4).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ckman, Robert W. 1973. "On the rel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o democratic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
- _____. 1975. *Politics and Social Equality: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Wiley.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5. "The Importance of Research Desig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 Linz, Juan J. 1978.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 crisis, breakdown, and reequilib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cCrone, D.J. and C.F. Cnudde. 1967. "Toward a communications theory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1).
- McMichael, Philip. 1990. "Incorporation Comparison within a World-Historical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June.
- Moore, Barrington. 1966. *The Social Or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Nagle, Ernest. 1961. *The Structure of Science*. New York: Harcourt.
- O'Donnell, Guillermo A.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_____. and 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ige, Jeffery. 1975. *Agrarian Revolution: Social Movements and Export Agriculture in the Underdeveloped World*. New York: Free Press.
- Przeworski, Adam. et al. 1995. "The Role of Theory in Comparative Politics: A Symposium." *World Politics* 48(1).
- _____ and Henry Teune.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 Ragin, Charles.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Press of California Press.
- Russett, Bruce. M. 1965. *Trends in worl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 Rustow, Dankwart. 1970. Transition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Comparative Politics* 2(3).
- Shorter, Edward and Charles Tilly. 1974. *Strikes in France, 1830-19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cpol, Theda and Margaret, Somers. 1980.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History and Society* 22. 「거시사회 연구에 있어서 비교사의 유용성」. 김웅진·박찬욱·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강의』. 서울: 한울.
- Smelser, Neil. 1976. *Compar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tephens, John D.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London: Macmillan.
- Tarrow, Sidney. 1995. "Bridging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ivide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What is the Best Research Strategy in Comparative and Area Studies: Variable-oriented Strategy or Case-oriented Strategy

Ahn Seung-gook

Research Professor of the Research Team for Developing Methodological Strategies in Comparative Areas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You-kyoung

Lecture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Eun-jung

Research Fellow of the Research Team for Developing Methodological Strategies in Comparative Areas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ariable-oriented and case-oriented research strategy are well established in comparative and area studies. In variable-oriented strategy, the goal is to demonstrate that a correlation holds for a certain population. The weakness of variable-oriented strategy is its tendency toward excessive generalization. In case-oriented strategy, the goal is to interpret a common holistic outcome. The weakness of case-oriented strategy is its tendency toward particularizing.

A conceivable alternative strategy is to combine the two major strategies. A combined strategy is applying both strategies to a research puzzle. The logic of both research strategies essentially the same. That is, variable-oriented and case-oriented strategy share a scientific logic. Both variable-oriented and case-oriented strategy have characteristics to falsify initial hypotheses by empirical evidences. In combined strategy, variable-oriented strategy can be used to verify the causal significance of a condition varies by context or case-oriented strategy used to confirm a correlation which is inferred from a certain sample.

안승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

Tel: 02) 961-4374. E-mail: sgahn61@hananet.net

김유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Tel: 02) 961-4224. E-mail: paela@hanmail.net

이은정,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

Tel: 02) 961-4374. E-mail: febeing@hanmail.net